

農政新編의 出典攷

金 明 培

崇義女子專門大學 敎養學科
(1986년 12월 20일 접수)

A Study on the Source of Manual for Agriculture

Nongjung Sinp'yon, Kim Myong-Bae
(Received December 20, 1986)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arch the origin of Nong Jung Shin Pyun (農政新編), a book of agricultural manual.

This book was edited by An Jong-Soo who translated the agricultural manual of Japan and China, both were writted in Japanese.

This book might be used not only as text book for agricultural workshop but as reference book for peasants.

것이다.

I. 序 論

舊韓末의 安宗洙(1849~1896?)가 엮은 『農政新編』에 收錄된 「茶」에 관한 記述의 引用文獻을 밝히는 일은 우리 나라에 導入된 製茶法의 系統을 把握하는 데 한 몫을 차지하는 課題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農政新編』은 安宗洙가 日本의 農書를 漢譯하였다는 說, 安宗洙가 朝鮮의 農法을 著述하였다는 說, 申箕(sic)善이 著述하였다는 說, 申箕善의 筆寫本과 安宗洙가 譯編한 두 가지가 있다는 등의 見解가 韓日 兩國에 亂立되어 定說이 없는 形편이었다.

그러므로 『農政新編』의 編者와 出典을 書誌學的으로 밝히게 된다면 그 成果는 東亞 시아의 學界에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II. 本 論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農政新編』에 관한 諸說은 翻譯說과 著作說로 要約될 수가 있다.

1. 翻譯說

가. 白井光太郎의 『本草學論攷』¹⁾
『農政新書』四冊은 開國四九四年(1886年 - 引用者註)에 朝鮮人 安起亭(雅號 - 引用者註)이 佐藤信淵의 『土性辨』, 『十字糞培法』, 『草木六部耕種法』 三冊을 漢文으로 抄譯한 것이다.

나. 西鄉靜夫의 『朝鮮農政史考』²⁾
「그리고 近代의 農書로서 農政新編(二冊)

1) 白井光太郎, 「本草學論攷」第2卷(東京:春陽堂, 1933), 400面.

2) 西鄉靜夫, 「朝鮮農政史考」(京城:朝鮮農會, 1921), 279面.

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佐藤信淵先生の 『培養秘録』(附・十字于糞培例)의 「土性辨」을 漢譯한 것으로서 李太王朝의 有名한 金玉均과 뜻을 같이 한 申箕善이 번역한 것으로서 재작년 조선에 온 京都大學의 內藤湖南博士의 말로는 往年에 조선에서 어떤 農書를 발견하여 홀로 이것을 진기하게 여겨 가지고 돌아가 熟讀하여 보았더니 佐藤先生の 著書였다. 그래서 곧장 秋圖書館에 寄附하여 두었다고 말한 것을 記憶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農政新編이 아니었던가 想像하고 있다

다. 李光麟의 「安宗洙와 農政新編」³⁾

「紳士遊覽團一行이 日本에 갔다가 서울에 歸還하기는 陰曆 7月末이었다. 一行과 같이 돌아온 安宗洙는 그 후 農書를 編纂하는 데 沒頭하였던 것 같다. 「新編」跋文 중 禮曹 參判 浣西 李祖淵 題에,

往歲安起亭宗洙 遊日東還 携各國現行農書若干卷 閉戶而繹之 刪其繁 而撮其要彙分條析數易月而書成 命之曰農政新編 書凡四卷…(下略)

이라 있듯이, 門을 닫고 집안에 들어앉아 日本에서 가지고 온 現行 各國農書를 參考로 하고, 自己 나름으로 整理를 하여, 四卷의 農書를 完成하였다는 것이다

라. 金明培의 「韓國의 茶道文化」⁴⁾

「구한말에 學部大臣을 지낸 申箕善이 서문을 붙인 安宗洙의 『農政新編』이라는 책도 胡秉樞(淸)의 『茶務僉載』 등으로 엮어진 것일 뿐, 朝鮮의 茶書는 아니었다

마. 金明培의 「韓國의 茶書와 茶道界」⁵⁾

「필자의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여 모르는 부분도 있으나, 다행히도 靜岡大學의 五井直弘教授나 靜岡縣立圖書館의 石田德行氏와 『中國古農書考』로 유명한 故天野元之助氏의 협력을 얻어서 이 책에 수록된 製茶圖가 청

나라 胡秉樞의 『茶務僉載』에서 復刻轉載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였다. 그러나 요긴한 『農政新編』속의 「茶」의 記述이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인가에 대해서는 後考를 기다릴 수 밖에는 없으나, 대체로 그 用語나 栽培法이나 製茶法의 특징 등으로 비추어 보건대 그 原典은 아마도 日本과 中國의 茶農書로부터의 번역서인 듯한 부분도 확인된다. 즉, 그 책 속에는 거름주기에서 廐肥 이외에도 人糞・馬糞 등이 있고, 또 防寒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覆下茶園과 같은 結架方式이 있다. 그리고 用語에 있어서도 挽茶・色附糞・糊附・除癖法 등의 日本式 表現이 보인다. 그러나 <차의 製法> 이하의 記述內容은 中國의 茶書에서 引用된 글이라는 느낌이 든다. 文武烘箱이라든가 12종의 어레미(篩)라든가 頭篩・毛茶・鑊・磨光・作色・覆火 등의 用語는 中國의인 表現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훗날 『日本農書全集』이나 『茶務僉載』 등을 探索하며는 究明될 것으로 생각된다

바. 李盛雨의 『韓國食經大典』⁶⁾

「安宗洙가 『農政新編』을 譯編한 것은 1881년이고 出刊된 것은 1885년이다.

西郷靜夫가 말하는 農政新編

(그의 『朝鮮農政史考』에서 引用한 내용은 나의 引用文과 같음)

주: 白井光太郎의 「本草學論攷」에서는 佐藤信淵의 「土性辨」, 「十字糞培法」, 「草木六部耕種法」 3書를 漢文으로 摘譯한 것이 『農政新編』이라고 하였다

사. 金榮鎭의 『農林水産古文獻備要』⁷⁾

「농정신서는 1881년(高宗 18年)에 안종수(安宗洙)가 역편(譯編)하여 1885년에 초판, 1905년에 재판이 된 책으로 토양, 비료, 경종에 관한 농업기술서이다.

3)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서울: 一潮閣, 1969), 212面.
 4) 金明培, 「韓國의 茶道文化」, 「盆栽壽石」第44号, (1980. 7・8), 42面.
 5) 金明培, 「韓國의 茶書와 茶道界」, 「アジア公論」第104号, (1981. 6), 141~143面.
 6) 李盛雨, 「韓國食經大典」(서울: 鄕文社, 1981), 188~190面.
 7) 金榮鎭, 「農林水産古文獻備要」(서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78~81面.

2. 著作說

가. 中川 覺의 「朝鮮茶史의 概要」⁸⁾

「李朝末期의 農政學者인 申寬(sic)善은 그 大著인 『農政新編』에 茶編을 插入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따라서 產茶의 技術書로서 實用된 것으로는 認定되지 않으며 『事文類聚』와 陸羽(727?~803?)의 『茶經』을 참고로 하고 그가 見聞한 바를 첨가해서 後世에 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觀察되는 데, 진기한 朝鮮式栽培法과 그 밖의 것을 실고 있다」

나. 金在生의 「韓國產 茶의 歷史的인 考察」⁹⁾

「李朝末期에 農政學者 申寬(sic)善은 中國最古의 訓話辭典인 『爾雅』와 陸羽(西紀 760)가 著述한 『茶經』와 參考로 하여 그가 當時 보고 들은 것을 追加해서 產茶의 實用 技術書인 『農政新書』(茶卷)을 만들었는데 그中 栽培法과 製造法에 대한 原文을 掲載하면 다음과 같다」

다. 小川英樹·松下 智·矢島喜一の 「地方茶의 起源에 關한 民俗植物學의 研究」¹⁰⁾

「…그러나 이상하게도 諸書의 通史에는 俗間에서 飲茶가 根絶되었다는 抑佛崇儒의 李朝末期가 되어 비로소 『農政新書』에 茶樹의 栽培法과 製茶法이 提示되어 있다. 다음에 이들의 現存하는 製法과 對比하여 李朝末期에 申寬(sic)善이 지은 『農政新書』에 載혀 있는 製法과 朝鮮總督府時代에 農林局에 勤務하고 있던 中川 覺氏가 踏査한 當時의 製法을 引用하여 製茶法의 變遷을 試圖하여 두 고자 한다」

라. 松下 智의 『日本茶의 傳來』¹¹⁾

「李朝期의 製茶技術에 대해서는 『農政新

書』를 들 수가 있다. 이 책은 李朝末期의 農政學者인 申寬(sic)善이 『茶經』이나 『事文類聚』 등을 參考로 하여 自身의 見聞을 後世에 傳하려고 한 것이다. 技術指導書로서 活用된 것으로 認定되지는 않지만 前記한 朝鮮式의 栽培法과 製茶法을 들고 있기에 그 要點만을 紹介하자」

마. 崔啓遠의 『우리 茶의 再照明』¹²⁾

「…이 책도 두 가지가 있는데 『농정신편』이라 하여 저작된 申寬善의 필사본 3권 3책과 『농정신편』이라 하여 廣印社에서 간행된 安宗洙가 譯編한 4권 1책의 책자가 있는 것이다. (前問恭作編『古鮮冊譜』P. 1584 참조) 처음 『농정신편』을 편저한 신기선은 1815년에 태어나 1909년 세상을 떠난 구한말의 증신이였다. (中略) 이같은 그였기에 조국의 농업근대화를 위해 청국의 여러 문헌을 망라해서 만든 책이 『농정신편』이 아니었던가 한다. 金明培씨에 따르면 이 책 속의 茶卷(sic)에 적힌 내용은 청의 胡秉樞가 엮은 『茶務彙載』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1885년 광인사에서 간행된 책은 안중수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다온 뒤 신기선이 지은 『농정신편』을 번역하여 펴낸 것이다. (中略) 신기선의 『농정신편』 茶卷의 원문은 金在生 교수의 논문 「한국산 차의 역사적인 고찰」 속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차의 신비성을 벗기고 기술적인 차 재배법을 전달하려고 했다. 매우 근대화된 저술이라 하겠는데 일반에서 거의 차를 마시지 않던 시절에 농사기술을 전달하는 책속에 차 재배법을 소개해 놓은 것이다」

8) 中川覺, “朝鮮茶史의 概要,” 「茶의 起源研究」第4号, (1966, 4), 5~6面.

9) 金在生, “韓國產茶의 歷史的인 考察,” 「農業研究所報」第2号, (1968), 73~74面.

10) 小川英樹 外, “地方茶의 起源에 關する 民俗植物學의 研究,” 「興誠論集」第11号, (1977, 3), 34-39面.

11) 松下 智, 「日本茶의 傳來」(京都: 淡交社, 1978), 86面.

12) 崔啓遠, 「우리 茶의 再照明」(光州: 三騰出版社, 1983), 209~210面.

3. 編 譯 者

『農政新編』을 申箕善의 著書로 誤認하게 된 原因은 書誌批判의 疎忽에 있었던 것으로 判斷된다.

그 첫번째의 事例는 前間恭作(1868~1942)의 『古鮮冊譜』¹³⁾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 데, 여기에는 마치 著者と 編者が 다른 두 가지의 『農政新編』이 있는 것으로 錯覺한 內容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農政新編 申箕善 著
字言哉 號陽園 平山人 熙王朝判書
農政新編三卷 三冊 寫本(曾欄子爵蒐書目錄)

農政新編
農政新編四卷 一冊 安宗洙編 印本
李太王時(總) 督府 大正十年目錄)

前間恭作가 저지른 誤謬의 原因은 書誌를 確認하지 않고 잘못된 圖書目錄에 依存하여 事務의 羅列한 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그는 落秩의 筆寫本에 붙어있는 序文의 筆者인 申箕善을 著者로 誤認한 曾欄荒助統監의 圖書目錄을 盲信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두번째의 事例는 中川 覺의 「朝鮮茶史의 概要」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즉, 그는 『農政新編』의 맨 앞에 붙은 序文의 筆者인 申箕善을 編者로 速斷하고, 뒷부분에 題跋을 쓴 安宗洙가 編者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만약에 中川 覺가 申箕善의 序文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라면 安宗洙가 編譯者임을 밝힌 다음의 內容을 確認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農政新編序

…安起亭宗洙 聰明強記 講洛閩之書 懷經濟之志 今年春 東遊日本 得中西農書若干篇

以歸 譯以漢文 刪其繁 彙冗分條析編 爲四卷 命之曰農政新篇…

辛巳歲抄 通訓大夫 侍講院文學 東陽 申箕善序¹⁴⁾

그 뿐만이 아니라 『農政新編』의 編譯者가 安宗洙임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은 安宗洙의 題跋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이다.

…余曩遊日東 求問其所謂農書者 中西現行之法 著爲成書 始至軸折矣 疲於記閱略撮其概名 曰農政新篇…¹⁵⁾

『農政新編』의 編譯者인 安宗洙의 字는 敬尊이요, 號는 起亭이요, 己酉(1849年) 生으로서 本貫은 廣州이다.¹⁶⁾

그의 生涯에 관한 斷片的인 記錄이라도 발견할 양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의 系譜學室에 所藏된 『廣州安氏族譜』, 『廣州安氏金海派族譜』, 『廣州安氏大宗中完議文』 등을 閱覽하였으나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

4. 『農政新編』의 內容

初版本의 앞부분에는 製茶와 製茶道具를 비롯한 20점의 木版畫를 收錄하여 本文의 理解를 돕도록 꾸며져 있다.

그리고 本文에는 다음과 같은 目次의 內容이 4卷에 나뉘어 收錄되어 있다.

이 책에서 종래의 營農技法에 전주어 새로운 것은 각종 化學肥料의 出現, 顯微鏡에 의한 土壤分析法, 열매를 맺는 草木의 수꽃술과 암꽃술의 人工受粉技術인 媒助法 등이 두드러진 것이다.

5. 漢譯文의 原典

安宗洙가 漢譯한 『農政新編』의 原書는 日本의 天保~明治年間(1830~1911)에 日本語로 발행된 日本과 清國의 農書였다.

安宗洙는 1885年에도 渡日留學生의 召還을 위해서 特派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미루

13) 前間恭作, 「古鮮冊譜」(東京: 東洋文庫, 1957), 1584面.

14) 安宗洙, 「農政新編」(漢城: 博文社, 1905), 1面.

15) 上掲書, 41面.

16) 全海宗,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서울: 東亞文化研究所, 1966), 211面.

卷次	區分	內容
第一卷	土性辨	壤土, 埴土, 埴土, 塗土, 埴土, 沙石(土性土質論, 土質解析法, 草木性質附, 植物生理, 排水術附)
	培養法	培養發端, 培養中耕(耕作事業, 拾肥事業, 土地休閒法, 耕種交代法)
第二卷	糞直法	人糞, 人溺, 馬糞(堆糞), 馬溺, 鷄糞, 羶糞, 獸肉, 魚貝肉, 乾魚, 魚油槽, 活物油, 人髮, 獸毛, 骨殼灰, 糞肥, 苗肥, 草肥, 埋肥, 腐肥, 厩肥, 草木灰, 秤肥, 米麥糠, 油槽, 酒醬, 豆糟, 粕, 水藻肥, 煤肥, 屋下芥, 塵埃, 海鹽, 灸日泥, 土硫黃, 紅磁石, 磁鐵灰, 新石灰, 溝河泥, 川砂, 客土
	糞培方	甲字號第一番肥糞方 ~ 癸字號第一番水糞方
第三卷	六部耕種上	根, 幹, 皮, 葉
第四卷	六部耕種下	花, 實

어 볼 때 日本語를 解得하였을 것으로 類推된다.

安宗洙가 活用한 原文과 編纂한 譯文을 抽出해서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가. 第一卷

(1) 「土性辨」

『農政新編』의 「土性辨」은 日本의 農學者인 佐藤信景이 著述하고 佐藤信淵(1769~1850)이 增補한 『土性辨』(東京: 寅實樓, 1873) 全五卷을 漢文으로 抄譯한 것이다.

「壤土」中에서 白壤의 原文(日本語)과 譯文(漢文)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原文

壤土中 白壤 第一等 滑石 白石 脂石灰 白灰 白粉 等粉

末ヲ多ク混ズ

(나) 譯文

壤土中 白壤 第一等 多混白堊 滑石 白石 脂石灰 之粉

(2) 「培養法」

『農政新編』의 「培養法」은 佐藤玄明窩翁이 口授하고 佐藤信淵이 筆記한 『培養秘錄』(東京: 寅實樓, 1873)의 全五卷中에서 卷一의 第七章과 第八章을 漢文으로 抄譯한 것이다.

『培養秘錄』	『農政新編』
第七章 培養ノ發端ヲ論ス	培養發端
第八章 中耕ハ培養ノ最要ナルヲ論ス	培養中耕

나. 第二卷

(1) 「糞直法」

『農政新編』의 「糞直法」은 『培養秘錄』의 各卷을 漢文으로 抄譯한 것이다.

『培養秘錄』	『農政新編』
卷二	第二卷
第九章 糞直ノ料三十六種ヲ論ス	糞直法
第十章 活物十二種ノ性功ヲ說キ人糞ノ化膿法ヨリ灰糞及塵土台肥三和土本肥下肥淡水糞等ノ製法ヲ論ス	人糞
第十一章 小便ノ妙用ヲ詳カニ顯熱ノ法ヨリ小便秤小便灰等ノ製法ヲ論ス	人溺

第十二章 馬屎ノ妙用ヲ論ス	馬糞
第十三章 馬糞ノ性功ヲ詳カニシ藥因鹽及礬礱砂透明礱砂焰硝并ニ焰硝精等ノ製法ヲ論ス	馬糞
卷三	
第十四章 鳥類ノ屎ヲ精究シ且雞屎ヲ多ク得ルノ仕方即チ數多ノ雞ヲ飼テ雞卵ヲ夥ク得ル法ヲ論ス	雞糞
第十五章 蠶屎ノ性功ヲ詳ニシ蠶蠟ト蠶蛾ノ用法ヲ論ス	蠶糞
第十六章 獸肉汁ノ良効ヲ論ス	獸肉
第十七章 魚肉貝肉ノ用法ヲ論ス	魚貝肉
第十八章 乾魚并魚油粕ノ用法ヲ論ス	乾魚並魚油糟
第十九章 活物油ノ用法ヲ論ス	活物油
第二十章 人髮獸毛ノ用法ヲ論ス	人髮獸毛
第二十一章 諸獸骨及大魚骨貝類ノ殼ヲ燒テ灰トナシ肥養ニ用ルノ法ヲ説キ又蠟殼灰ヲ製スル法ヲ論ス	骨殼灰
卷四	
第二十二章 穀肥ノ用法ヲ論ス	穀肥
第二十三章 苗肥ノ用法ヲ論ス	苗肥
第二十四章 芝肥ノ用法ヲ論ス	芝肥
第二十五章 埋肥ノ法ヲ論ス	埋肥
第二十六章 腐肥ノ性功ヲ論ス	腐肥
第二十七章 厩肥ノ性功ヲ論ス	厩肥
第二十八章 草木灰ノ用法ヲ論ス	草木灰
第二十九章 秤肥ノ用法ヲ論ス	秤肥
第三十章 粉糠ノ用法ヲ論ス	米麥糠
第三十一章 油糟肥ノ用法ヲ論ス	油糟
第三十二章 諸糟粕ノ用法ヲ論ス	酒醬芥諸糟粕
第三十三章 水藻ノ性功ヲ論ス	水藻肥
卷五	
第三十六章 詰石ノ法ヲ論ス	(缺)
第三十九章 煤肥ヲ論ス	煤肥
第四十章 屋下芥焰硝ノ性功ヲ論ス	屋下芥芥焰硝
第三十八章 灸日泥ノ理ヲ論ス	灸日泥
第四十一章 石灰ノ性功ヲ論ス	(缺)
第四十二章 土硫黃ノ性功ヲ論ス	土硫黃
第四十三章 紅砒ノ性功ヲ論ス	紅砒石
第四十四章 紅砒礦ノ性功ヲ論ス	砒礦灰
第四十五章 紅砒灰ノ性功ヲ論ス	新石灰
第三十七章 溝泥ノ主能ヲ論ス	溝河泥
第三十五章 川砂ノ主能ヲ論ス	川砂
第三十四章 客土ノ用法ヲ論ス	客土

(2) 「糞培方」

例』(東京:寅寶樓, 1873)를 漢文으로 抄譯

『農政新編』의 「糞培方」은 元庵 佐藤式行 翁이 짓고, 佐藤信淵이 筆記한 『十字號糞培

한 것이다.

『十字號糞培例』	『農政新編』
<p>甲字號第三番肥養方 瘠薄地ノ堅實二過タルハ深ク疎整術ヲ行テ 埋肥ヲ施サ、レハ作物ヲ豐熟セシムコヲ得ヘ カテス既二埋肥シタルキハ此方ヲ用テ作物ヲ 成熟ス 諸獸大魚骨灰二俵 草木灰三俵 人糞濃者四 荷 以上三品煉テ泥ノ如クシ四五日休置テ此ヲ 一土ニ耕混スヘシ</p>	<p>第三番肥養方 (混耕於瘠薄過硬之地) 諸獸大魚骨灰二俵 草木灰三俵 濃人糞四荷 右煉和如泥休四五日後 混耕於瘠薄過硬之地</p>

다. 第三卷・第四卷
『農政新編』의 第三卷인 「六部耕種上」과
第四卷인 「六部耕種下」는 佐藤信淵의 「草木

六部耕種法』(1832年)을 漢文으로 抄譯한
것이다.

『草木六部耕種法』	『農政新編』
<p>卷二 需根上篇 卷三 需根中篇 卷四 需根下篇 卷五 需幹上篇 卷六 需幹下篇 卷七 需皮全篇 卷八 需葉上篇 卷九 需葉下篇</p>	<p>第三卷 六部耕種上 } 根 } 幹 } 皮 } 葉</p>
<p>卷十 需花上篇 卷十一 需花下篇 卷十二 需實第一篇 卷十三 需實第二篇 卷十四 需實第三篇 卷十五 需實第四篇 卷十六 需實第五篇 卷十七 需實第六篇 卷十八 需實第七篇 卷十九 需實第八篇 卷二十 需實第九篇</p>	<p>第四卷 六部耕種下 } 花 } 實</p>

라. 「茶」項의 出典
『農政新編』의 前部分에 收錄된 製茶圖와
卷之三의 「葉」篇에 있는 「茶」項의 記述에
대한 出典을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具와 製茶光景의 插畫는 淸나라 胡秉樞가 짓
고, 日本의 肥後 竹添光鴻이 번역한 『茶務
僉載』(東京:內務省 勸農局, 1877)의 뒷部
分에 收錄된 插畫를 模寫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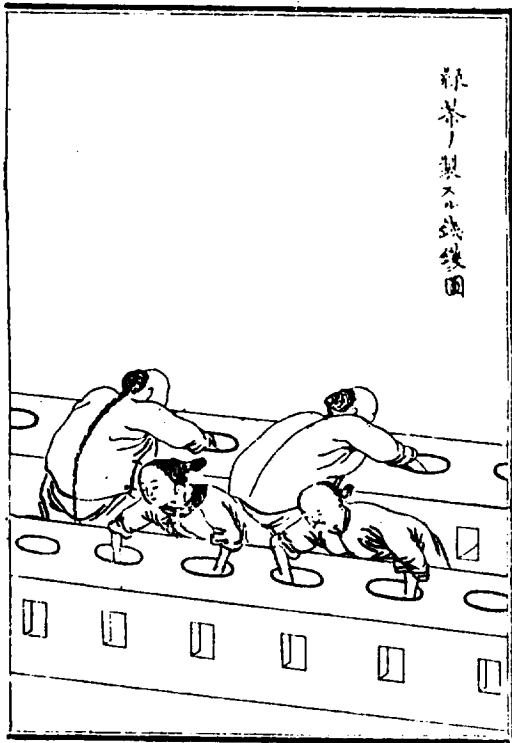
(1) 插畫

『農政新編』의 初版本에만 收錄된 製茶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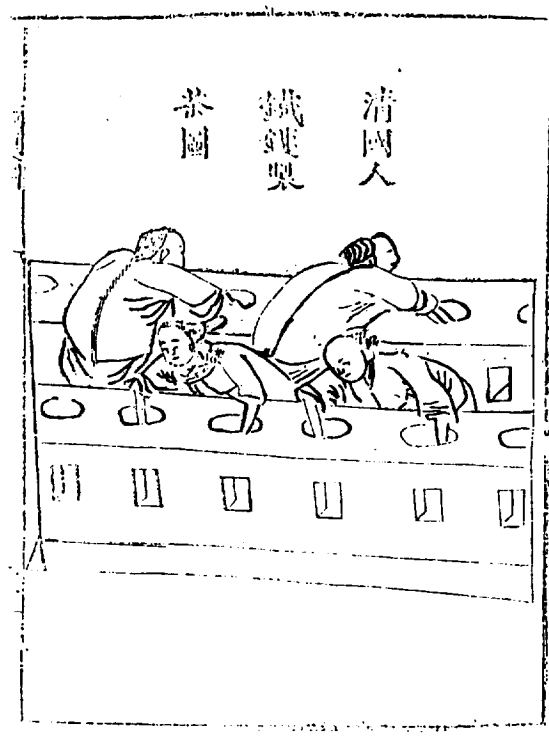
(2) 「茶」篇

『農政新編』(卷之三)의 「葉」篇에 收錄된

『茶 務 食 載』	『農 政 新 編』
竹焙圖 二點 (48面) 同上蜂膜式圖 二點 (49面)	竹焙器 二點 (10面) 二點 (10面)
小眼節 (51面) 大眼節 (51面)	小眼茶節 (10面) 大眼茶節 (10面)
(茶竈)圖 (52面) 紅茶ノ鐵鑊 (52面) 綠茶ノ鐵鑊 (52面) 節ノ底 (51面) 茶ヲ盛ル竹器圖 (51面)	茶竈 (11面) 紅茶鐵鑊 (11面) 綠茶鐵鑊 (11面) 茶節之底 (11面) 盛茶竹器 大·中·小 三圖 (11面)
綠茶ヲ製スル錢鑊圖 (49面)	清國人 鐵鑊製茶圖 (11面)
研壺 滑石粉弁ニ乾洋製ヲ細末ニスル器 ナリ (50面)	研壺圖 綠茶紅茶製時 滑石及洋紅洋青細 末之器 (1面)



綠茶를 만드는 鐵鑊圖(『茶務食載』所收)



清國人 鐵鑊 製茶圖(『農政新編』所收)

「茶」의 記述(19~23面 所收)은 佐藤信淵의 『草木六部耕種法』과 胡秉樞의 『茶務食載』를 漢文으로 抄譯한 것이다.

(가) 『草木六部耕種法』

① 編次의 對比

原典인 『草木六部耕種法』과 譯書인 『農政新編』의 編次를 견주어 보면 表現上의 變改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草木六部耕種法』	『農政新編』
卷九 需葉 下篇 茶 茶園造法 唐茶製法 宇治製法	第三卷 葉 茶 茶・煎茶・茶製法(挽唐茶製法) 綠茶製法

② 内容의 對比

의 譯文을 拔萃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草木六部耕種法』의 原文과 『農政新編』

分野	『草木六部耕種』	『農政新編』
茶	郭瑣가曰く, 早采曰茶, 晚采曰茗, と. 然水ば茶と云は, 芽出て未だ其葉の開かざるを摘み採りたる者にて, 今時挽茶た製し, 茶の湯の濃茶淡茶に點る者を云ふ, 又茗とは其葉既に開きたるを採りたる者に用ふるた云ふ.	早採曰茶 晚採曰茗 茶之採未開葉者 製爲挽茶用於點茶 採既開葉者 用於煎茶也
茶園立地	古來樹下北陰に宜しと云ふと雖ども, 必ずしも此に拘泥こと勿れ, 唯能く北風の吹徹して爽なるを好み, 濕氣の滯る瀝陰たるを惡む,	性喜山北樹陰 北風爽埜處 而最忌濕氣之淤溢
植茶	茶を植ゆるには赤土・黒土に拘はらず, 砂利・小石の錯たるをも嫌はず, ∞ 先づ山島ならば, 高方より卑方に縱に深さ二尺, 幅二尺六七寸に溝を掘り,	不拘黒土與砂石 地掘溝深二尺廣二尺六七寸
	○挽き茶と製するには, 蒸製・煮製の二法あり, 蒸製は新葉極にて稚きのを製し, 煮製は新葉漸肥たる者製す, ○煎茶を製するには, 新葉を悉く摘採りて上葉・下葉を調ひ分け, 煮製の法を行ひて清水に冷し,	○挽茶製法 有蒸製 煮製二法 蒸製 製其新葉極稚者 煮製 製其新葉漸肥者 ○煎茶製法 分上葉下葉 如煮製法 而冷之於清水
製法	○唐茶の製法は, 極上品を製さんことを欲せば, 其の葉の作法も, 摘採も挽茶を作るに異なること無し, ○茶は固より作らざるべからず, 且又山茶・茶梅・枸杞・五加皮・桑・楮等の葉も, 亦能く製すれば唐茶と爲して服すべし, 殊に此等の葉を煎じたる茶粕は皆食ふべくして, 虎凶	○唐茶製法 與挽茶製法無異 且山茶 茶梅 枸杞 五加皮 桑楮之葉 亦皆爲蒸 煮爲茶

の年に續を救ふに基だ良物ほり, 不可不察也.	凶荒救飢者也
------------------------	--------

(나) 『茶務僉載』 植類・「採擇類」・「綠茶製做類」를 漢文으로 『農政新編』 20面の 둘째 줄부터 21面の 抄譯한 것이다. 첫째 줄까지는 『茶務僉載』(日譯版)의 「種 그런데 『農政新編』의 編纂이 均衡을 잃고

類 別	『茶 務 僉 載』	『農 政 新 編』
種 植 類	茶ヲ植ルハ, 高山, 大嶺, 又ハ窮谷中至高ノ處ヲ以テ宜トス, 茶ノ物タル, 其霧露ニ感スル愈々深ケレハ, 其味愈濃カナリ, 而シテ之ヲ植ルノ地其土性愈厚ケレハ, 則チ茶樹愈々壯ニシテ, 其葉更ニ厚ク且大ナリ,	高山大嶺窮谷中 至高處最宜植茶 茶之物 感於霧露 愈深則其味 愈濃 所植之地土性 愈厚則茶樹愈壯 其葉更厚且大
採 擇 類	茶葉ハ, 早晚露ヲ帶ル時ニ乘ジテ, 之ヲ採ルニ宜シ, 露霧風飢ノ氣ヲ舍ミ, 地脈上騰ノ時ニ當ルヲ以テ, 其葉精華ヲ充盈ス, 故ニ味濃ニシテ, 香烈ナリ,	茶葉宜乘早晚露 而採之 舍霧露 飢之氣 當地脈上騰之時 其葉精華充盈 故味濃而香烈
製 做 類	先ツ綠茶ノ製法ヲ論ス可シ, 茶葉ヲ摘採スルヤ否ヤ, 兩露ヲ帶ルヲ論セス, 鐵鑪ノ下ニ, 炭火ヲ熾カンニシ, 其鑪ノ赤クナルヲ以テ度トシ, 茶葉ヲ鑪內ニ放在シ, 暫クモ手ヲ住ナスシテ, 之ヲ炒軟メ, 隨ツテ炒リ, 隨ツテ搓シ, 畧ホ一團塊ヲ成ス可キニ至ツテ, 則之ヲ別鑪ニ移ス可シ,	文火鐵鑪放在茶葉 暫不住手 則炒軟之 隨搓略成 一團塊 移於別鑪
	初炒ヲ名ケテ, 磨光トス, 再炒ヲ名ケテ, 作色トス, 三次ヲ名ケテ, 覆火トス, 倘シ磨光作色ノ後, 其色尙參差シテ, 一齊ナラサルコアレハ, 再ヒ女エヲ發シテ揀擇セシム, 之ヲ名ケテ覆揀ト云, 此ノ如クシテ, 則成ヲ告ケ, 箱ニ裝シテ出售ス,	初炒曰磨光 再炒曰作色 三炒曰覆火 其色無參差 則告成裝箱而出

跋行的이 된 것은 安宗洙가 『茶務僉載』에서 佐藤家門의 農學者들이다. 「紅茶鐵鑪」의 插畫는 轉載하면서 紅茶의 家門의 上代는 家業이 醫師였으나 家系의 三代인 信利가 醫業에서 農政學으로 家統을 바꾸었다. 製法은 除外시켰다는 사실이다.

6. 原典의 著者들

가. 日本人

『農政新編』에 譯載된 日本農書의 著者는

왜냐하면 凶年에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본 信利가 醫業을 한 사람은 고칠 뿐이므로, 經世救民을 위해서는 農政學을 하여야 된다

고 決心한 때문이다.¹⁷⁾

이러한 契機로 誕生된 『十字號糞培例』의 著者인 信行은 二代요, 『土性辨』의 著者인 信景은 三代요, 『培糞秘錄』의 著者인 信季는 四代요, 『草木六部耕種法』의 著者인 信淵은 五代였다.¹⁸⁾

나. 淸人

淸國의 嶺南人으로서 『茶務僉載』의 著者인 胡秉樞는 日本의 明治政府를 찾아서 製茶法을 傳授하겠다고 提案하였다.

때마침 차의 海外輸出을 對備하던 日本政府에서는 胡氏의 提案을 받아들여서 靜岡에서 改良된 製茶法을 指導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茶務僉載』를 번역 출판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⁹⁾

7. 『農政新編』의 寄與度

中川 覺가 指摘한 『農政新編』의 實用化 否定說은 다음과 같은 狀況的 證據를 勘案할 때 쉽게 首肯되지를 않는다.

가. 寄贈本의 配布

『農政新編』의 再版本은 1905年 10月, 서울의 博文社에서 4卷 1冊으로 발행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 붙어있는 趙柄均의 「跋文」과 金一濟의 「廣告文」에 따르면 再版(鉛活字)本은 職郡守인 金一濟²⁰⁾의 捐金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 趙柄均의 「跋文」

「浩然金君一濟 素抱經濟 志功救民 以爲我 韓民產專藉農業 而其學蔑如者士大夫之過也 起亭安君所述農政新書 講求中西之新制實明農之要訣 蓋亦廣其傳授 以前民用耶 乃損金登刊以行于世」

(2) 金一濟의 「廣告文」

「所入資金은 本人이 自擔하와 勿請價金하오니 有志하신 僉君子는 傳相贈覽하시와 務

要廣佈에 俾農政으로 期於發達케 하심을 千萬爲盼 金一濟 敬告」

이처럼 義捐金으로 책을 펴낸 金一濟가 政府에 책을 寄贈함에 따라, 1905年 11月中旬, 農商工部에서는 各道에 頒布하게 되었다. 「『大韓每日新報』(1905. 11. 16)

○ 農書廣佈

農商工部에서 京居 金一濟 請願을 因하여 其自備 刊出한 農政新編 冊子를 發達케 할 意로 發訓 十三道하였다더라」

이렇게 各道에 配布된 『農政新編』은 多少間이나마 營農에 應用되었을 것이다.

나. 教科書로 採擇

金一濟의 捐金으로 刊行된 『農政新編』의 再版本은 舊韓末 때 學部에서 私立學校의 高等用 教科書로 認定되었다.²¹⁾

이 밖에도 筆者의 所藏本(再版本)에는 「湖南光義塾之章」과 「成趣園圖書印」이 捺印되어 있으므로 學校와 農園에서 實用化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農事講習教材

國漢文 混用의 翻譯本 『農政新編』(京城: 朝鮮總督府, 1931)에 붙은 「序」文에 따르면 郡에서 開催되는 農事講習會에서 『農政新編』이 教材로 活用되었고, 篤農家인 李泰浩의 境遇처럼 營農指針書로 活用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忠淸北道 槐山郡 佛頂面에 有名한 篤農家가 있는데 그는 李泰浩라고 하는 이다. 李太祖의 長子 鎮安大君의 後裔로서 年齡은 이미 古稀를 지났다. 少時에는 儒學을 배웠으며 또 東西古今의 歷史에 能通하다. 年來로 農事改良에 留意하여 만한 研究를 거듭하여 그의 抱負는 매우 豊富하다. 年前 槐山郡廳에서 農事講習會를 開催하였을 때에 氏도 또한 이를 聽講하였었다. 그런데 그講習會의

17) 瀧本誠一, 『日本産業資料大系』3卷(東京: 中外商業新報社, 1926), 976面.

18) 鶴甲惠吉, 『佐藤信淵選集』(東京: 誠書新聞社出版部, 1943), 3~5面.

19) 胡秉樞, 「茶務僉載」竹添光鴻譯(東京: 內務省勸農局, 1877), 1~3面.

20) 「皇城新聞」1905年 5月 12日字, 1面.

21) 柳鐸一, 「開化期教科用圖書總錄」, 『韓國學論集』第1~5輯, (1980, 3), 370面.

所說이 氏가 多年 愛讀하든 農政新篇과 相以 한 點이 頗多하였었다. 그리하여서 그 冊을 發刊하여 널리 農家에 頒布하려고 하던 次에 昨冬 齋藤總督이 氏를 訪問하여 農事의 改良 農村의 振興에 關한 그의 말을 듣고 感歎不己하였었다. 그 後 十餘日만에 氏로부터 本書를 總督에게 보내고 그의 希望을 말하였으므로 總督은 곧 本府 技師로 하여곰 本書의 內容을 審査케 하였던 바 農家에 參考될만한 點이 不少함으로써 此를 翻譯하여 頒布하기로 한 것이다」(따이 쓰기-筆者)

8. 結 論

以上으로 『農政新編』의 成立에 關한 翻譯說·著作說을 비롯하여 所引文獻과 寄與度 등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그 結果 『農政新編』은 安宗洙가 日本에서

가지고 온 日本과 淸國의 農書(日本語版)를 漢文으로 抄譯하였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그리고 『農政新編』은 學校의 教科書나 農事講習會의 教材로서 뿐만 아니라 篤農家의 營農指針書로도 널리 活用되었다.

한편 筆者는 年前에 『農政新編』의 「茶」項을 日本語와 韓國語로 翻譯發表한 일이 있었다.²²⁾

그런데 筆者가 『農政新編』의 日本語 翻譯文을 最初로 發表²³⁾할 때는 安宗洙가 使用한 日本語版의 原典을 入手하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農政新編』(日本語의 漢譯文)의 日本語 번譯文과 原典의 日本語를 比較하면 많은 差異가 發見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그리고 茶道史나 茶業史를 研究하는 見地에서 『農政新編』에 紹介된 製茶法이 實用化된 事例가 發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2) 拙著, 「韓國의 茶道文化」(東京:へりかん社, 1983), 382~387面.

拙著, 「韓國의 茶書」(서울:探求堂, 1983), 175~184面.

23) 拙文, 「韓國의 茶書と茶道界」上掲書(1981. 7), 161~164面.

※ 本稿는 「国会圖書館報」第173号(1984/6·7)와 「クジク公論」第153号(1985. 7)에 「農政新編出典의 書誌」라는 題下에 발표한 글을 補強한 것임.